

2019.1월 제3호

# BLOCKCHAIN 동향과 이슈



## CONTENTS

### 이슈리포트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 BLOCKCHAIN 동향과 이슈

2019. **1**월 제3호

## CONTENTS

이슈리포트 .....	2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	25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	33

※ 「BLOCKCHAIN 동향과 이슈」는 본 협회 협력사인 '코인니스(Coinness)'의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이슈리포트

- ‘탄생 10주년’ 을 맞아 돌아켜 본 비트코인의 실질적 투자 가치
  - ‘날개 없는 추락’ 비트코인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것 일까?
- 4차 산업혁명의 꽃 블록체인, 어디까지 왔을까?

## ■ ‘탄생 10주년’ 을 맞아 돌아켜 본 비트코인의 실질적 투자 가치 - ‘날개 없는 추락’ 비트코인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일까?

-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경이로운 기록을 만들어 내었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아래와 같은 수치를 보고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됨

「 ‘BTC 장중 2만달러(2017년 12월)’ , ‘4년간 약 20,000% 급등(2017년 기준)’ , ‘시총 8,200억 달러 육박(2017년 말)’ 」

- 하지만 2018년 들어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약 1만 3,000달러 (-78%)가 하락하였고, 지난 11월간 가격 하락 폭은 36.57%, 같은 기간 시가 총액 850억 달러가 거짓말처럼 증발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롤러코스터식 가격 흐름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내재가치’ 에 따른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모색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 수익의 수단으로만 바라본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함
- 실제 2008년 사토시가 백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개인과 개인’ 이 ‘탈중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배분과 공유’ 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라 소개함
- 당시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기존 중앙화된 기득권 사회에 대한 저항정신, 누구나 공정·공평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를 담은 일종의 사상이었음
- 엄밀히 말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이와 같은 ‘내재가치’ 를 바탕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고, ‘탈중앙화’ 라는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는 듯한 단어는 기존 화폐가 사회 전반 시스템을 즉시 대체할 만큼 강력하지 못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10년간의 시행착오는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내재 가치 구현에 따른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부각함
- 실제 비트코인 관련 산업은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광범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출현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결제 및 가치저장 수요도 증가함

### ▶ 99%의 요구 ‘탈중앙화’ ...그로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10년

-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일찍이 1976년 ‘화폐의 비국가화(Denationalization of Money)’ 를 발표하고, 화폐 영역에서 국가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화폐의 비국가화(Denationalization of Money) : 중앙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화폐 발행 및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면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도태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화폐만 생존하게 된다는 논리

- 이후 그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신용보다 신뢰 가능한 화폐 시스템을 구상, 그는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개개인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하이에크와 밀턴의 이 같은 주장은 이후 비트코인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됨
- 1970년대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쪼개고 묶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MBS)을 만들었던 월가 투자 은행이 일부 채권 연체가 심해지자 또 다른 형태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개발해 내고, 이후 CDO가치가 하락하자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신용부도

## 이슈리포트

스와프(CDS)를 만들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돌리기’와 같은 시스템이었고,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게 됨

- ※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의 일종
  - ※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부채담보부증권 :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여러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의 일종
  - ※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 : 금융기관이 채권이나 대출을 해준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프리미엄)를 지급하는 대가로, 보장매도자가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장받는 일종의 파생보험상품
  -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
- 이로 인해 중앙화 기득권 세력에 의한 또 한 번의 경제공황에 전 사회적 분노는 극에 달하였으며, 상위 1%를 대변했던 월스트리트는 나머지 99%에 의해 점령당함
  - 당시 드러난 중앙화 사회 구조의 기형적 모순은 비단 대형 금융기관에 그치지 않았음. 미연준(FRB)은 각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차 양적 완화를 강행, 달러 유동성을 풀게 됨
    - ※ FRB(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중추적 기관으로, 12개 연방준비은행을 관할하는 역할
  -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살아났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간접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됨. 이는 중앙화된 정부·기관 및 기득권 세력에 너무 많은 신뢰의 종속된 결과였음

- 비트코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탄생하게 됨. 2008년 11월 1일,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인터넷 공간에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9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발표하고, 비트코인 개념을 처음으로 공개함
- 그로부터 두 달 후인 2009년 1월 3일, 마침내 최초의 비트코인이 채굴됨

#### ▶ 비트코인, 10년간의 ‘홍망성쇠’

-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주요국 상황, 혹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세가 급격하게 흔들림. 실제 블록체인 미디어 ‘99 비트코인스’에 따르면 2013년 키프로스 공화국 위기, 2013년 9월 미국 섯다운 위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으며,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이나 업계 주요 인사 비관적 발언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거나 심하게 요동치게 됨
- 2009년 1월 비트코인 탄생 이후 2010년부터 1년여간 비트코인은 상승장을 이어감. 2011년 2월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달러와 같은 수준(1BTC=1\$)까지 상승하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 가치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함
-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 ‘타임스’ 등 메이저 미디어도 연일 비트코인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부추김
- 2011년 6월 8일 비트코인 가격은 32달러를 기록, 탄생 3년여 만에 ‘1만 600배 상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실물 거래에 쓰인 비트코인 최초 가격은 0.003달러 수준이었음

## 이슈리포트

- ※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 사는 ‘Laszlo’라는 닉네임의 비트코인 포러 이용자가 “피자를 보내주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함. 그때만 해도 1만 비트코인이 25달러, 우리돈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값이었음. 5일째 되는 날 22일, 남자에게 피자가 배달되었고 약속대로 비트코인을 주고 인증까지 마침. 이는 대중이 기억하는 최초의 비트코인 실물거래이며 그 후로 이를 기념해 ‘Bitcoin pizza day’ 까지 만들어짐
- ‘비트코인 1세대 암호화폐거래소’ 마운트곡스는 2010년 출범과 동시에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80%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로 부상함. 하지만 2011년 해킹으로 인한 지갑 프라이빗키 도난 사건이 발생, 카펠리스 마운트곡스 CEO는 이 해킹 원인으로 블록체인에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함
-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아침에 10달러 부근까지 하락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2달러 수준까지 주저앉음
- 2013년 비트코인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됨. 2013년 4월 키프로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로 야기된 유로존 경제 위기 우려가 비트코인에 대한 상대적 관심을 고조시키게 됨
  - ※ 키프로스 :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인구 80만명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하지만, 유럽 각국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지정학 자원 등과 결합하면 해당 영향력은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커짐
- 유로존 위기 회피 자금은 신흥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던 비트코인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달려들게 됨. 비트코인 가격은 30달러 선에서 단숨에 260달러 선으로 급등함



-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함. 사실상 비트코인 성장을 견인해 온 다크웹 ‘실크로드’가 2013년 10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폐쇄 조치된 것
  - ※ 다크웹 : 일반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심층 웹으로, 마약 · 무기 · 해킹 프로그램 · 포르노 등을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범죄 진원지로 인식
- 당시 FBI가 추산한 실크로드의 설립 이후 2년간 거래량은 950만 BTC로 당시 비트코인 총거래량의 80%에 육박함
- 실크로드의 충격이 상당했지만 유럽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 관련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은 바로 회복세를 찾음. 2013년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은 1,200달러를 돌파함. 이는 당시 금 온스 당 가격과 비슷한 수준임
- 2013년 12월에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던 중국이 규제 고삐를 조이고 나서면서 비트코인 상승세가 다시 한번 꺾기게 됨. 당시 인민은행(人民銀行)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해당 정책 발표 후 비트코인은 60%이상이 폭락함
-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트코인은 상당히 긴 침체 터널에서 허덕이게 되었고, 특히 2014년 2월 28일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은 치명타. 2011년 이미 한 차례 해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는 마운트곡스는 이번에도 해킹으로 85만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함
- 해킹 소식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80% 이상이 폭락했고, 2016년 7월에는 가격이 200달러 수준까지 주저앉으며, 한때 1,000달러 돌파를 무색하게 함
- 2016년부터 비트코인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함. 당시 비트코인 자체

## 이슈리포트

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호재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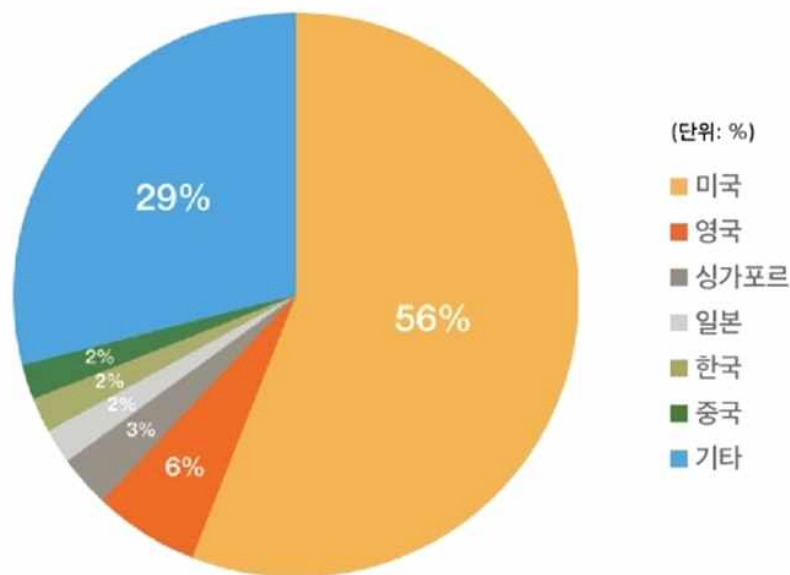
- 우선 두 번째로 찾아온 비트코인 반감기(비트코인 1개 블록 생성 시 획득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가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전망을 고조시킴

※ 비트코인은 2012년 첫 반감기 이후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감기를 겪음

- 영국 브렉시트 위기, 미국 대선 등 외부적 요인도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를 확대함. 아시아 투자자가 글로벌 비트코인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주요국 경제 회복세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함
- 비트코인은 2016년 12월 1,000달러를 재차 돌파한 데 이어 2017년 5월 2,000달러 선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9월 4일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대대적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한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을 비롯한 전 세계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증가함
- 2017년 12월 18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18,674달러를 기록함. 당해 연말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만 달러’, ‘4년 전 대비 20,000% 급등’, ‘시총 8,200억 달러 돌파’ 등 여러 진기록을 쏟아냄. 2017년 비트코인 연간 가격 상승 폭은 1,700%에 달함
-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해 사상 최고가 기록 이후 최근까지 지루한 침체장을 이어감. 2018년 1월 7일 비트코인은 한때 1만 6,446달러까지 상승, 단기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함
- 특히 2018년 11월에는 BHC 하드포크, 미국 SEC 규제 등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심리적 지지선 5,000달러 (11월 19일), 4,000달러 (11월 24

일)를 차례로 무너뜨림. 12월 5일 14시 40분 비트파이넥스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41% 하락한 3,925.9달러에 거래됨

[표1] 국가별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창업투자 규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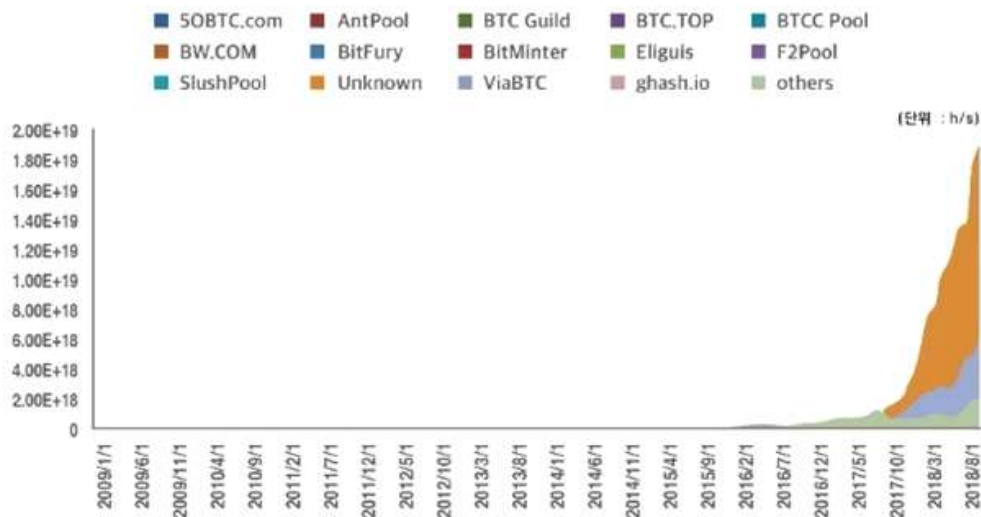


### ▶ 비트코인 관련 산업 ‘우후죽순’

-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고조되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함. 채굴, 거래소, 지갑·ATM, 블록체인 등이 대표적임. 특히 채굴은 비트코인 블록 생성을 위한 핵심 분야로서 단기간 내 비트코인 관련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
- 비트코인은 결국 ‘누가 더 많은 해시파워를 점유하는가’ 하는 절대적 작업량에 따라 코인이 채굴되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기업에 유리함
  - ※ 해시파워 : 암호화된 수식을 풀어내는 능력
- 이에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중국계 대형 기업이 업계 잇달아 진출하였고, 시장 독과점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채굴 시장은 단숨에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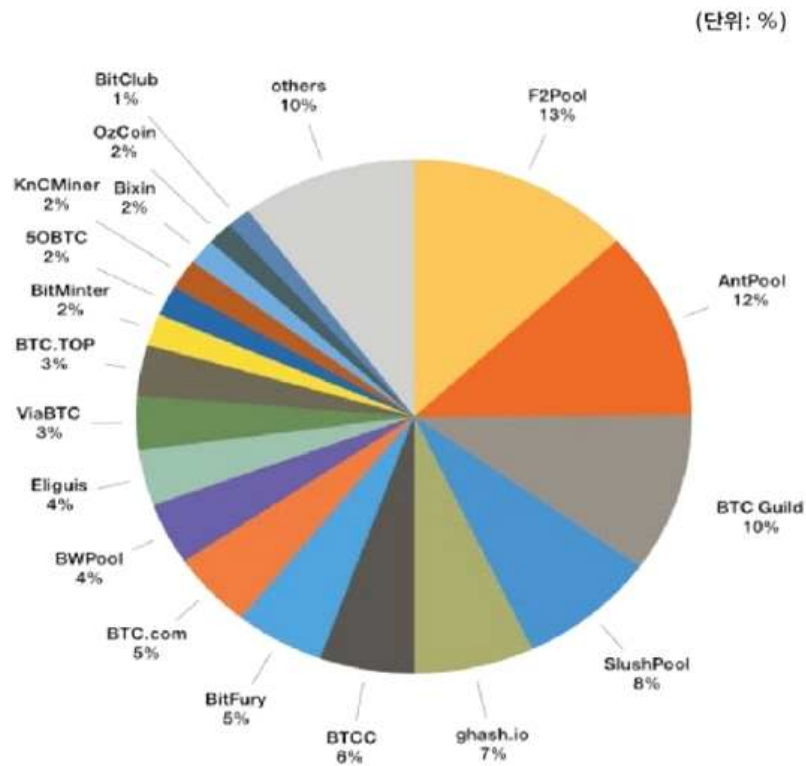
(高)투자 고(高)수익' 산업으로 자리매김

[표2] 비트코인 해시파워 비교



- 중국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렌더더(链得得)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글로벌 4대 채굴기업체는 비트메인(比特大陆, Bitman), 가나안 크리에이티브(嘉楠耘智, Canaan), 이방글로벌(億邦國際), 선전비터웨이덴쯔(深圳比特微电子, MicroBT)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함
  - 채굴 참여자가 늘고 경쟁에 따른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채굴 풀’이라는 새로운 채굴 수단이 등장함
- ※ 채굴풀 : 채굴풀은 대규모 채굴용 컴퓨터 등 자원을 결합, 전체 그룹의 블록 채굴 가능성을 높임. 블록보상은 그룹에 기여하는 작업 처리 권한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나눠 가짐. 높은 전력 및 시간 비용 부담이 큰 개인 투자자에게 선호

[표3] 채굴풀 비트코인 해시파워 비중



- BTC.com에 따르면 2018년 10월 19일 기준 글로벌 채굴풀 시장은 F2풀 (F2Pool, 13.0%), 비트메인 산하 앤트풀(11.9%), 비트코인 길드(BTCGuild, 10.0%), 슬러시풀(SlushPool, 8.1%), GHash.IO(7.0%), BTCC(5.5%) 등이 장악함
- 대형 거래소도 잇달아 생겨남.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유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비트코인 보유자가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하거나 비트코인 채굴풀이 거래소를 통해 채굴 비트코인을 이용자에게 매도 혹은 매수하는 방식임
- 2018년 12월 5일 코인마켓캡 기준 유통 암호화폐 수는 2,067개, 시총 규모는 1,259억 5,326만 4,103달러로 비트코인 비중은 53.9%임

[표4] TOP 100 Cryptocurrency Exchanges by Trade Volume

Cryptocurrencies ▾		Exchanges ▾		Watchlist		USD ▾		Next 100 →	
#	Name	Adj. Vol (24h)*	Volume (24h)	Volume (7d)	Volume (30d)	No. Markets	Change (24h)	Vol Graph (7d)	Launched
1	Binance	\$579,089,186	\$579,089,186	\$3,501,682,534	\$24,277,333,780	391	-6.96%		Jul 2017
2	OKEx	\$469,827,607	\$469,827,607	\$2,913,103,784	\$20,952,968,396	457	-16.14%		Jan 2014
3	Huobi	\$362,391,058	\$362,391,058	\$2,561,357,340	\$16,748,210,480	287	-27.06%		Sep 2013
4	DigiFinex	\$331,119,667	\$331,119,667	\$2,073,729,066	\$12,590,399,283	96	-13.93%		Apr 2018
5	ZB.COM	\$306,888,159	\$333,001,985	\$2,117,656,867	\$13,194,811,548	92	-4.63%		Nov 2017
6	Bibox	\$288,443,619	\$288,443,619	\$1,376,547,697	\$8,569,309,102	207	21.02%		Nov 2017
7	DOBI trade	\$286,946,506	\$286,946,506	\$1,407,722,239	\$7,340,394,317	12	2.38%		May 2018
8	Bit-Z	\$284,211,058	\$284,211,058	\$1,287,986,131	\$5,993,693,852	154	27.08%		Jun 2016
9	CoinBene	\$281,331,503	\$281,331,503	\$1,728,013,589	\$9,374,689,260	173	-9.75%		Sep 2017
10	IDAX	\$268,251,842	\$268,251,842	\$1,554,128,127	\$8,147,918,307	130	-7.30%		Dec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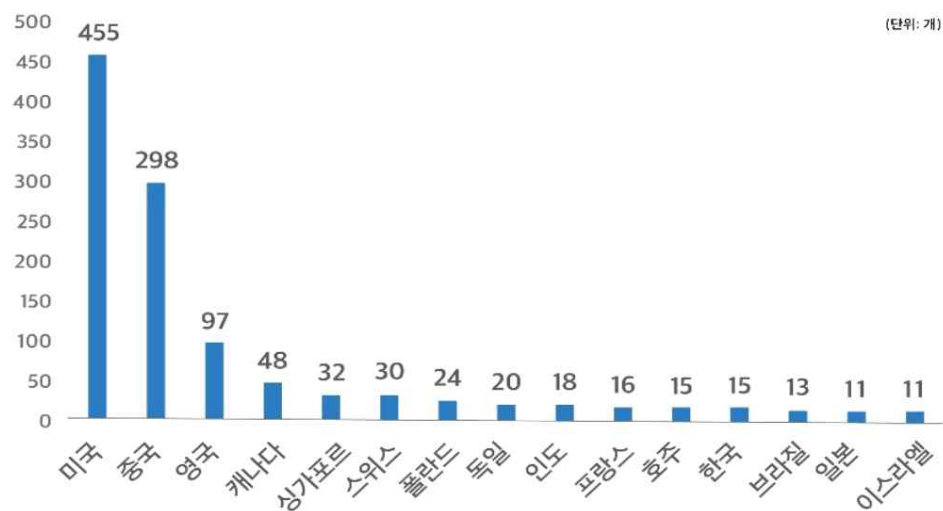
※ 자료 : 코인마켓캡

- 비트코인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지갑 등 다운스트림 산업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남
  - ※ 비트코인 지갑 :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주소, 공개키, 개인키로 구성. 종류별로 보면 하드웨어 지갑, 웹기반 PC용 지갑, 모바일 지갑 등이 있음
- 비트코인 ATM기기 업체 출현도 주목되고 있음. 네트워크 기반 비트코인 ATM기기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즉시 환전을 해줌. 2013년 10월 29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첫 비트코인 ATM기기가 등장한 이래 2014년 3월 8일 서울, 3월 15일 홍콩, 4월 15일 상하이에 비트코인 ATM기기가 잇달아 설치됨
-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연관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중국 암호화폐 미디어 렌더더

(链得得)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기업 수는 1,242개로, 국적별로는 미국, 중국, 영국이 상위권을 차지함

- 미국과 영국은 블록체인 분야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함. CB Insights에 따르면 2012년 이래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조달 규모는 총 270건을 기록하였으며, 자금 조달액은 10억달러 규모로, 글로벌 블록체인 자금조달의 55%를 차지함
- 영국과 싱가포르가 6%, 3%로 뒤를 이었고,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한국이 2%대 점유율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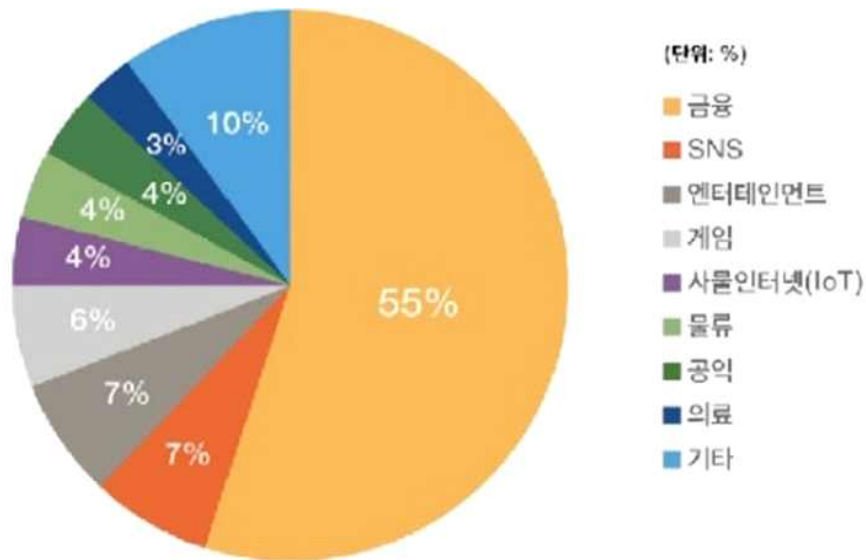
[표5]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 ‘자동화 시스템’ 등 특징을 바탕으로 금융, SNS, 엔터테인먼트, 게임, 사물인터넷(IoT), 물류, 공익, 의료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 이들 8대 분야 블록체인 프로젝트 비중은 전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금융 비중은 50% 이상에 달함



[표6] 블록체인 응용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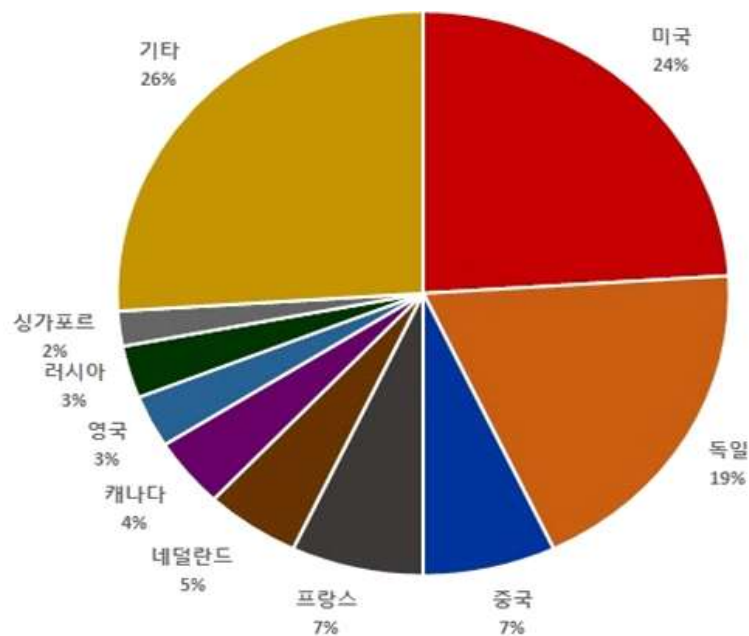
▶ 비트코인 3대 특징... ‘탈중앙화’ , ‘작업증명’ , ‘고정 발행량’

-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제3자 기관을 통해 발행되지 않는 순수한 개인 대 개인(P2P)의 디지털 화폐임
- 기본적인 원리는 비트코인 거래가 발생하면 다수 노드가 해당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래 행위 확인 후 해당 정보를 다시 주변 노드에게 전달한 뒤, 이를 전달받은 노드는 또다시 주변 노드에 해당 정보를 전달, 거래 장부를 공유함
- 이 같은 시스템의 장점은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음으로써 조작할 수 없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임
- 비트코인 관련 데이터 플랫폼 비트노드스태티스틱(Bitnodes statistics)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14시 기준 비트코인 이체 거래 확인 노드 수는 10,000여 개에 달함



- 해당 노드 분포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러시아 등 주요국 외에도 베네수엘라, 멕시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다수 개도국이 포함됨

[표기] 주요국 노드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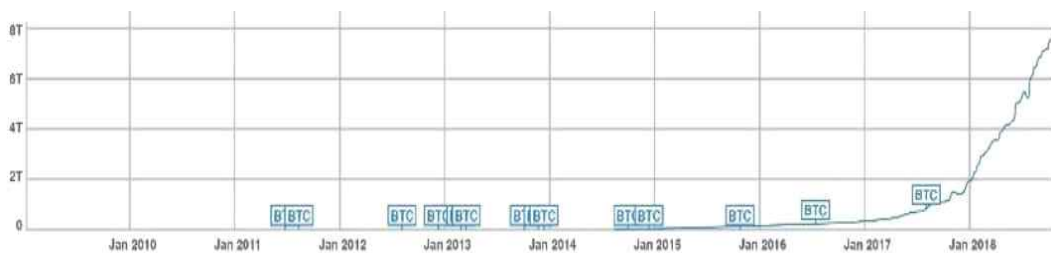
- 비트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복잡한 연산 과정을 풀어 채굴하며 해당 거래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점임.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혹은 프로토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참여자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작업증명(PoW)등 방식을 채택

※ POW(Proof of Wokr)작업증명 : P2P 네트워크에서 일정 시간 혹은 비용을 들여 수행된 컴퓨터 연산작업을 신뢰하기 위해 참여자 간에 간단히 검증하는 방식을 말함. 즉, 자신의 채굴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이 없다면 블록을 생성할 수 없음. 제3자 기관 인증 없이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장치임과 동시에 누구나 작업량만큼의 보상을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슈리포트

-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발행 총량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며 ‘반감기’라는 장치를 통해 가치 하락을 방지함. 반감기란 말 그대로 비트코인 1개 생성 시 획득하는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의미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비트코인 시스템상에서 특정 집단이 임의로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함
- 반감기 주기는 대략 4년으로, 2009년 첫 등장 이후 비트코인은 이미 두 번의 반감기를 겪은 상태임.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생성되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10분에 50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0분에 25개, 2017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는 10분에 12.5개가 생성되고 있음
- 다음 반감기로 예상되는 2020년 6월이 지나면 BTC블록당 보상은 6.25BTC로 기존의 절반으로 감소

[표8]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추세



※ 자료 : bitinfocharts.com Odaily연구원

## ■ 4차 산업혁명의 꽃 블록체인, 어디까지 왔을까?

- 지난해 글로벌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암호화폐가 바닥을 알 수 없는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변동과는 별개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
-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중장기 성장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동반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실제 블록체인은 출범 초기만 해도 실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통, 운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며 전통 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 ‘유통’ , ‘운송’ , ‘금융’ 전통 산업 적극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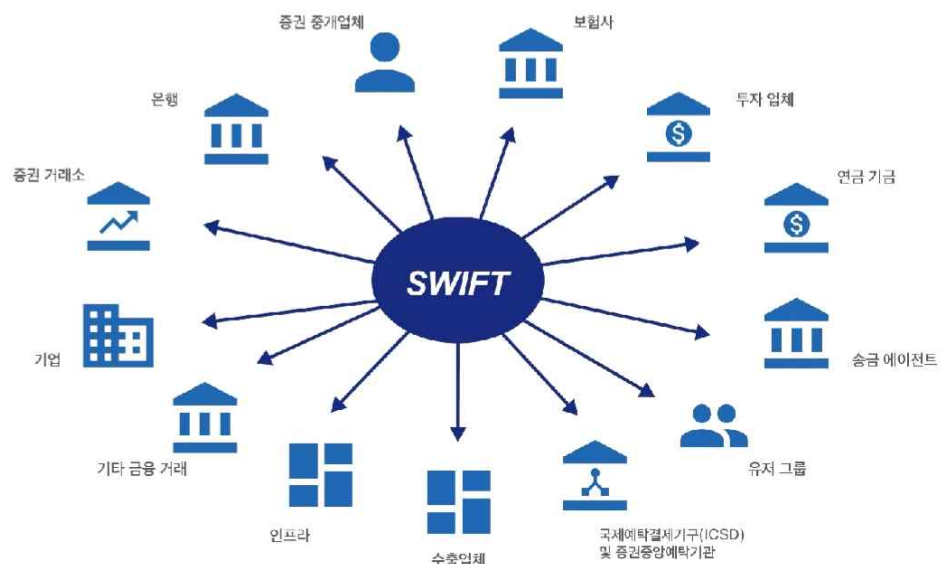
- 식료품 유통 비효율성은 단순 산업 성장 지연을 넘어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지적함. 블록체인이 실생활 관련 산업 중 식료품 유통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임
-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전 세계 식료품 생산부터 포장, 운송,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 할 수 있으며, 운송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해도 즉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함
- ‘세계 최대 유통 업체’ 월마트가 이미 2016년부터 IBM과 협력해 식품 공급망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채소 공급업체 식품 추적도 추진 중임. 전 세계 33개국 1만 2,000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유통업체 까르푸(Carrefour)도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식품 유통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힘

## 이슈리포트

-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활용 잠재력은 부각되고 있음. 세계 1위 선사 머스크는 IBM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기존 해운 과정은 화물의 주인인 화주, 선사, 운송사, 터미널, 항구, 세관, 물류 중개인, 금융업체 등 다양한 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보증, 계약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시간, 비용 낭비 문제가 심각해짐
- 머스크와 IBM은 블록체인 기반 물류 시스템을 통해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모든 문서 처리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에 연결함. 해당 시스템 도입을 통해 머스크는 컨테이너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 운송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함
- 기존 중앙 집중형 방식과 달리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은 거래 투명성이 중요한 금융 분야에서도 선호되고 있음. 특히 송금, 결제 등 업무 관련 블록체인이 적극적으로 도입됨
- 기존 송금 시스템하에서는 은행이 업계 독점적 입지를 구축하는 가운데 송금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짐. 국가 간 송금 서비스는 고수익 업무로 2016년 기준 전 세계 지급 매출 중 국가 간 송금 비중은 40% 이상, 국제 송금 평균 건당 수수료 비율은 7.68%에 달함
-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최소 30분 내 송금 거래 완료가 가능함. 일부 조건에 따라 최장 16시간까지 소요될 수도 있지만, 기존 은행 간 송금 업무가 평균 3일 정도를 소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청산결제분야 블록체인 활용 잠재력도 부각됨. 중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바비터(巴比特)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청산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최저 200억 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특히 리플(XRP)은 기존 해외 송금 결제망 스위프트(SWIFT) 시스템을 뛰어넘는 대체 거래 네트워크로 주목받고 있음
- ※ 청산결제 : 양국간의 개별교역에 대한 거래가 행해질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 지급과 임금을 적어놓았다가 일정기간(6개월 혹은 1년)마다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
- ※ 스위프트(SWIFT) : 거래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 참여자 확인 절차 완료 이후 결제가 진행, 높은 수수료와 3일 이상 처리 시간이 요구됨
- ※ 리플(XRP) : 쌍방향 거래 정보 교환 프로토콜보다 효율적인 거래를 구현. 리플의 국가간 실시간 결제가능 지원 서비스인 엑스레피드의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최소 40%에서 최대 7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9] SWIFT 주요거래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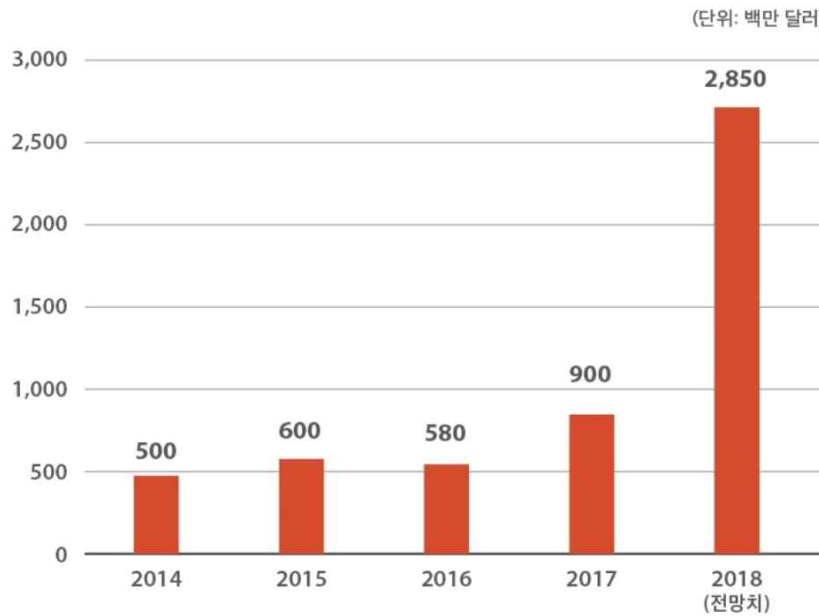


- 금융 분야 블록체인 활용 잠재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대형 기관의 업계 우위 선점 행보도 빨라지고 있음. 글로벌 투자 은행 JP 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Quorum)을 바탕으로 해외 결제 서비스이자 거래 정보 공유 프로젝트 ‘은행간 정보 네트워크 (Interbank Information Network. IIN)’를 선보임
- 해당 시범 서비스에는 스페인 최대 은행 산탄데르센트랄히스파노 (SHC)를 비롯해 글로벌 75개 대형 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 글로벌 메이저 카드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올해에만 블록체인 관련 특허 60개를 등록함. 마스터카드는 해당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향후 블록체인 기반 결제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 ▶ 2018년 블록체인 투자, 양호한 성장세

- 블록체인 실생활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관련 투자도 증가함. 실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장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관련 투자는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함
-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진씨차이징(金色财经)에 따르면 누적 3분기 블록체인 분야 벤처캐피탈(VC) 투자액은 28억 5,000만달러(약 3조 2,100억원)로 2014년 이후 해당 분야 누적 투자액 총합을 넘어섬
- 투자액 규모도 2018년 2분기 블록체인 분야 지분형 자금조달 건수가 119건으로 분기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2,500만 달러(약 280억원)이상 자금 조달 건수는 8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함

[표10] 글로벌 VC 블록체인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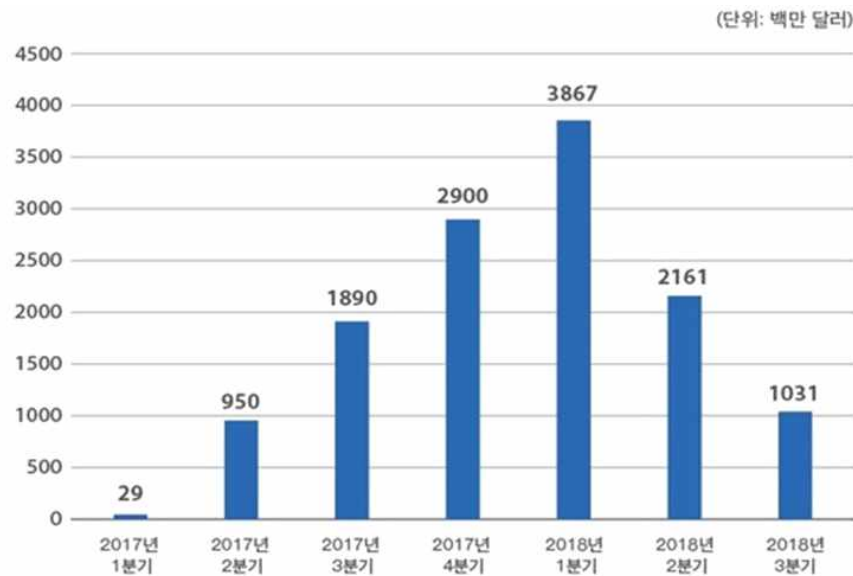
- 블록체인 분야 인재와 기술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 간 인수합병(M&A)도 증가함.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진씨차이징(金色财经)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기준 글로벌 블록체인 M&A 누적 건수는 전년도 30건 대비 약 70% 증가한 50여 건을 기록, 연간 건수는 2014년 7건에서 2015년 19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22건을 기록함
- 개별 사례로 보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지난 8월 홍콩 소재 증권사 Pantronics Holdings Ltd 지분을 7,000만 달러(약 790억원)에 인수했으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7월 분산화 지갑 개발업체 트러스트 월렛(Trust Wallet)을 인수함
- 주요국 가상화폐공개(ICO)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자금조달이 증가해 주목함. SAFT는 ICO와 유사하지만, 토큰이 발행되기 전 판매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슈리포트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진씨차이징(金色财经)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SAFT방식으로 2018년 4월 18일 17억 달러(약 1조 9,200억원)를 조달했으며, Hedera Hashgraph가 1억 달러(2018.4.18일), Basecoin이 1억 2,500만 달러, Tzero가 1억 3,400만 달러(2018.4.18일), Filecoin이 2억 달러(2018.9.17일)를 조달함
- 반면 ICO는 2018년 1분기 38억 6,700만 달러(약 4조 3,600억원)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모습임. 전 세계 ICO 규모는 2분기 21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10억 3,100만 달러에 그침

[표11] 글로벌 ICO 조달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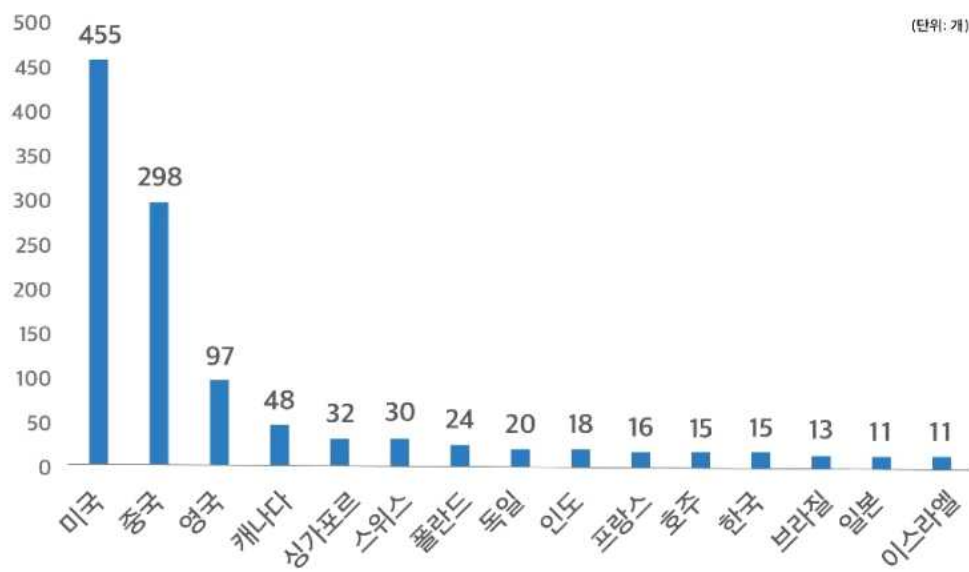


- 딜로이트가 2018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0%기업이 내년 500만 달러 이상 금액을 블록체인 기술개발 도입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히고 2019년에도 전 세계 블록체인 투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중국 기업 응답 비율이 50%로 여러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진씨차이징(金色财经)은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 “초기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의 도입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컸지만, 실생활 실질적 도입이 빨라지면서 블록체인 활용 잠재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향후 이에 따른 기업 투자 및 신흥 기업 증가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표12]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 2018.12월 ]

한국블록체인협회

## ■ 과기부·외교부·재외공관 문서 공증에 블록체인 도입...위변조 예방

-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외교부가 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계획, 이를 통해 빠른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와 관련해 과기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 이라 밝힘

## ■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통신판매사업자 말소, 소비자보호 사각

- 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거래소 웹사이트에 게재된 통신판매업자 등록번호가 정부가 인정한 사업자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함
- 이로 인해 거래소는 물론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됨
-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임

## ■ 블록체인 스타트업, “ICO 전면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 KBS에 따르면, 6일 국내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프레스토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함. 즉, 국내 모든 ICO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임

-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 ■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술 적용 프로젝트 본격 가동

-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업무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힘
-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거래」 체결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를 지난 11월 30일 상용화하고 금리파생상품을 거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도입하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하는 데 성공함

### ■ 국내 블록체인 기술, 年 3조 규모 ‘불법 콘텐츠 복제’ 차단

- 10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에드라 정보기술(IT) 자회사인 이지스커뮤니케이션이 모든 콘텐츠 복제 시도를 차단하는 블록체인 기반 융합보안 기술인 ‘킵스시큐리티(Keeps Security)솔루션’을 발표함
- 이를 통해 연간 3조원 규모에 이르는 불법 콘텐츠 복제 유통을 근절,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전망이며 QR코드 결제에도 적용돼 위변조할 수 없는 QR코드 결제시스템으로 해킹을 원천 차단할 계획함

### ■ 장병규 4차위원장 “블록체인·ICO TF구성...사회적 합의 주력”

-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및 2기 4차 산업혁명위원들이 10일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2기는 블록체인 및 ICO,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TF를 구성할 예정”이라

며 “1기와 달리, 2기 TF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국회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힘

## ■ 제주도의회, 블록체인 공공분야 사용 보고서 발간

-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10일 ‘블록체인 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힘
- 블록체인 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보고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간한 ‘블록체인 언체인드(Blockchains Unchained)’를 번역, 공공 서비스 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함

## ■ 삼성, EU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상표권 출원

- IT 전문미디어 샘모바일(Sammobile)이 “10일 삼성이 EU 지적재산권 사무소(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당사 휴대폰에 사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상표권 신청서 3건을 제출” 함
- 갤럭시 디바이스에 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소프트웨어 상표권 명칭 : 블록체인 키보관(Blockchain KeyStore), 블록체인 키박스(Blockchain Keybox), 블록체인 코어(Blockchain Core)

## ■ 테라, 한화갤러리아 쇼핑몰에 블록체인 결제시스템 지원

- 매일경제에 따르면, 12일 신현성 티몬 창업자가 이끄는 테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온라인 쇼핑몰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한화갤러리아는 테라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2~3% 수준인 카드사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마진율을 높여 추가 할인을 소비자에게 제공함

## ■ LG CNS, 암호화폐 기반 결제 프로젝트 시범 사업 추진

- 전자신문에 따르면, 최근 LG CNS가 LG사이언스파크 내 자사 직원 대상으로 암호화폐 기반 결제 프로젝트인 마곡페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후 노원 코인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 ■ 과기정통부, 2019년 1월 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 발표

- 17일 지디넷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18일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보완 작업을 거쳐 2019년 1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1기를 구성해 아래 5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룸
  - ①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 ②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 제도 현황 분석
  - ③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 ④ 분산원장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전자문서 인정 여부
  - ⑤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 정부, 신성장동력 R&D ‘블록체인’ 추가 선정

- 서울경제에 따르면, 17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함
- 이날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 중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신성장 R&D 사업군에 새롭게 추가, 지원을 예고함

- 블록체인 기술이 신성장 R&D사업군에 추가되면 일반 R&D보다 세액 공제율이 높아짐. 현재 신성장 R&D 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0~4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0~30%수준임

## ■ 과기부·해수부, 항만물류에 블록체인 도입

-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항만물류에 도입,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부두 간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힘
- 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타 부두 환적 시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컨테이너 환적 업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2018년 12월부터 1년동안 부산신항에서 일부 항만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사업성과를 검토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함

## ■ 정부,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두 배 확대

- 20일 지디넷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내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두 배로 확대, 총 12대 과제를 선정해 8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함께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 같은 사업 계획이 포함된 2019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함

# 해외 정책 및 산업동향

[ 2018.12월 ]

- 미국
- 캐나다
- 베네수엘라
- 프랑스
- 러시아
- 영국
- 중국
- 홍콩
- 일본
- 싱가포르

한국블록체인협회



## 미 국

### ■ 미국 SEC 위원장, ICO 프로젝트들에 법안 준수 강조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이 ICO 규제 환경과 관련해 “모든 ICO 프로젝트는 SEC에 등록하고 미국법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SEC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많은 ICO 프로젝트들이 발행하는 토큰들은 증권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들은 토큰 관련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당국의 법안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임

### ■ 미국 SEC “유명인 ICO광고, 사기 행위로 간주”

- 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셜 인플루언서(유명인)의 ICO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
- SEC는 “SNS등 온라인 플랫폼상의 유명인이 대가를 받고 ICO를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특히 해당 ICO가 SEC 규정 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말함
- SEC는 “인플루언서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통적인 금융 투자 상품을 비롯, ICO 등 신형 금융 투자 상품을 홍보할 경우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유명인 투자 조언에 의심하는 태도를 갖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함

### ■ 미국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기존 규제 원칙에 맞춰야 한다”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 등 신기술이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해서, 투자자 보호 등 규제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그는 “SEC는 오랜 경험을 통해 검증된 규칙을 갖고있고,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과 관련한 공청회 질문은 2017년 3월에야 등장했다”며 “기술이 우리의 규칙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함

### ■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 은행 업계 반대에도 ‘블록체인 은행 법안’ 통과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은행 법안(Blockchain bank bill)’을 13:1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블록체인 은행 법안(blockchain bank bill) :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금융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음

- 와이오밍 주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관 ‘특수목적 예탁은행(Special Purpose Depository Bank)’을 출범할 예정임

### ■ 미국 오하이오주, ‘BTC로 세금 납부...사실과 다르다’

- 3일 미국 주간 투자신문인 바론즈(barrons)는 오하이오크립토(OhioCrypto.com)을 인용, “정부는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달러로 바꾼 뒤 받는다”며 “재무부는 절대 암호화폐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함

## ■ 나스닥, “2019년 상반기 BTC 선물 출시할 것”

- 3일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나스닥 미디어 부서 부총괄 조셉 크리스티나(Joseph Christina)가 “나스닥은 2019년 상반기 BTC 선물을 출시할 것”이라며 “나스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선물 출시를 위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었다” 밝힘

## ■ 미국 국토안전부, 익명성 토큰 관련 법률적 분석 방안 모색

- 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R&D 프로그램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rch Program’ 이 BTC를 비롯한 암호화폐의 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기관이 발행한 연구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상업적 용도와 정부 특화 용도를 겸비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활동에 사용될 경우 익명성 강화 토큰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수행할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미국 국립과학재단, 블록체인 기술로 보조금 지급 절차 관리

- 4일 미 공공 IT전문 매체인 GCN에 따르면, 미국 연방 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이 연구비나 포상금 등 보조금 지급 검토 절차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전망이다. 즉, 블록체인으로 각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상황을 공유해 기관들의 보조금 중복 지급을 피하고, 자금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임

##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ICO관련 규제법 제정 추진

- 5일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즈(financemagnates)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오하이오 출신 공하당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이 최근 ICO 및 암호화폐 산업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 그는 “규제를 마련은 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ICO는 실제로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 IMF 총재, “암호화폐 규제...정부 참여 필수”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들에게 완전히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정부 당국은 “컴퓨터 지식이 부족하거나 디지털 변화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며 “닷컴 시대에 등장한 몇몇 기술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살아남은 암호화 자산들은 우리의 금융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임

### ■ 미국 정부, 위조 방지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에 최고 80만 달러 지원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위조 방지’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최고 8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DHS 산하 기술이사회(S&T)는 SVIP(Silicon Valley Innovation Program)를 통해 해당 비희석화 펀딩(Non-dilutive Funding)이 네 단계를 거쳐 지원될 것이라 발표함

※ 비희석화 펀드 :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발행 없이 진행되는 융자

## ■ 미국 하원, 암호화폐 법안 3건 도입 추진

- 7일 미국 경제 미디어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법안 3건 도입을 추진중이며, 의원들은 구체적인 방법 제시함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 조작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CFTC의 설명과 효율적 감시 프로세스를 위한 규제 방침 변경
- ②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CFTC에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의 대안’ 요구
- ③ CFTC에 ‘암호화폐 가격 조작 가능성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 요구

## ■ 미국 하원의원, 암호화폐 시세조작 방지 2개 법안 발의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최근 미국 플로리다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대런 소토(Darren Soto)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테드 버드(Ted Budd)가 최근 하원의회 ‘2018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법’ 및 ‘2018 미국 가상통화 시장 경쟁 규제법’ 등을 상정함
- 해당 법안들은 암호화폐 시장 내 시세조작이 어떤 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

## ■ 미국 SEC, 미등록 암호화폐 기업에 5만 달러 벌금 및 영업 정지

- 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펀드매니저 ‘코인알파 어드바이저 LLC(CoinAlpha Advisors LLC)’에 벌금 5만 달러를 부과함
- 해당 기업은 2017년 10월 설립된 펀드매니저로 투자자를 유치해 6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 ■ 미국 제미니 거래소, 17일 BCHABC 상장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억만장자 윙클 보스형제가 운영하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뉴욕금융서비스국(NYSDFS)의 승인하에 17일 BCHABC를 상장한다고 밝힘
- 해당 거래소에는 현재 BTC, ETH, LTC, ZEC가 상장되어있음. 제미니 측은 “아직 BCHSV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지원하지 않지만, SV의 상장 가능성을 검토중이다”고 덧붙임
- BCHABC는 9일 코인마켓캡 기준 7.85% 상승한 109.69달러에 거래됨

## ■ 미국 대형 보험사,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 테스트

- 11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Stats Farm)이 채권자의 대위권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테스트 중에 있다고 발표함
- ※ 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 ■ 외신 “암호화폐 채굴기, 5개 모델만 순이익 가능”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암호화폐 채굴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ASIC마이너밸류(Asicmineralue)의 데이터를 인용, “암호화폐 시장이 좀처럼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올해 출시된 채굴기 중 5개 모델만이 12월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해당 채굴기들은 각각 Ebang, Asicminer, Innosilicon, Bitmain 등 채굴기 제조 업체에서 제조된 모델로, Ebang의 ‘Ebang Ebit E11+++’ 모델이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 다이어 “코인베이스, 탈중앙화 거래소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 11일 암호화폐 전문리서치 기관 다이어(Diar)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를 헤징하고 있다”고 분석함.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코인베이스는 지난 5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파라덱스(Paradex)를 인수했으며,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발표한 31종의 암호화폐 중 절반이 이미 파라덱스에 상장되어 있었다”고 강조함

### ■ 나스닥 상장사, 유럽계 디지털자산 투자업체 인수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프로액티브인베스터스(Proactiveinvestors)가 “나스닥 상장 업체 RYVL이 476만 유로(약61억원)에 유럽계 디지털 자산 투자업체 블록체인 노르딕(Blockchain Nordic)을 인수한다”고 보도함

※ 블록체인 노르딕 : 영국, 덴마크 코펜하겐, 스페인 마르베야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인덱스 투자, 맞춤형 포트폴리오 등 디지털자산 관련 투자 솔루션을 제공

### ■ 미국 버몬트 주, 블록체인 워킹 그룹 출범 예정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미국 버몬트 주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함
-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블록체인 워킹그룹은 상업 및 지역발전부, 국무부, 금융규제부, 법무부 등 총 4개의 정부 기관으로 구성될 예정임
- 이와 관련 T.J.도노반(T.J. Donovan)버몬트 주 검찰총장은 “내년 1월 블록체인 워킹그룹이 정식 출범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블록체인 협회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 밝힘

### ■ 미국 SEC, 8월 이래 ICO관련 고발 및 감사 최소 12건

- 지난 8월부터 12월 13일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ICO 관련 처벌 및 감사 사건이 최소 12건으로 나타남

- 美 SEC고발 대상이 된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구분	건수	벌금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3건	3만~300만달러
스캠형 ICO 프로젝트	3건	
무허가 ICO 진행	2건	
자산운용사 및 펀드운용업체	2건	
개인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	2건	

■ 미국 ICE CEO “백트, 자체 클리어링 하우스 사용할 것”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뉴스BTC(Newsbtc)에 따르면, 제프 스프레처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 CEO가 “백트 플랫폼은 자체 클리어링 하우스를 사용할 것”이라며 “해당 클리어링 하우스는 미국 최대 규모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리스크 위원회에 의해 규정을 정하게 될 것이고, 백트 플랫폼에 신뢰를 갖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에 ‘암호화폐 지지자’ 지명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New acting White House Chief of Staff)으로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를 지명함
- 믹 멀베이니는 “블록체인이 금융산업, 미국 경제 그리고 공공사업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미국 벤처 투자 협회, SEC에 토큰 자산 한도 철폐 요청

- 16일 미디어 AXIOS에 따르면, 미국 벤처 투자 협회(NVCA)가 미



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냄

- 미디어에 따르면 SEC는 ‘비적격 투자’ 카테고리 내 투자항목 또는 벤처 투자 적격 업무 외 투자 자산의 비중 투자 상한선을 자본금의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도 포함
- NVCA측은 이에 대해 “우선주 혹은 토큰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을 ‘현금 등 자산’으로 분류, 토큰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함

#### ■ 미국 CSIS 보고서, 블록체인 개발에 민관협력 방안 제시

- 17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Harnessing Blockchain for American Business and Prosperity’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지분거래가 지난 2013년의 9,800만 달러 규모의 50건에서 2017년 6.4억 달러 규모의 14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보고서는 미 정부 당국과 기업들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 협력 및 생태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
  - 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도하에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을 마련해 적법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블록체인 플랫폼 및 생태계의 확장성,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및 스마트 컨트랙트의 무결성(Integrity) 및 유용성(utility)과 관련된 혁신 및 사용 사례장려
  - ②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플랫폼 관리자의 면책 조항 등의 규제 확실성(certainty)과 유연성(flexibility)을 겸비해 블록체인에 대한 혁신 및 투자 장려
  - ③ 연방 기금을 이용해 국방, 관세, 무역 및 의료 관리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보안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민관협력 및 개발 가속화
  - ④ 주요 기관들의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 재단(GBDF)설립, 개발도상국

의 블록체인 개발 촉진을 통해 업무 환경 개선 및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발굴

- ⑤ 규제 기관, 연방 및 주정부기관, 미국 기업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보급 가속화

### ■ 서클, USDC 월간 감사 보고서 발표...경영 투명성 강조

- 19일 경제 전문 온라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즈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Circle)이 자체 발행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공개함
- 해당 보고서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서클의 USDC 보유 현황 및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 소재 글로벌 컨설팅 업체 그랜드 손튼(Thomton LLP)이 맡아 진행함
-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30일(현지시간) 기준 USDC는 177,190,279개 발행되었으며, 서클은 커스터디 계정에 180,192,792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캐 나 다

### ■ 캐나다 채굴업체, 4,500만 달러에 코인직 인수

- 2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증시 상장 채굴업체 스콰이어 마이닝(Squire Mining Ltd.)이 마이닝폴 코인직(CoinGeek)을 인수함
- 인수 비용은 6,030만 캐나다달러(약 508억원)로, 인수합병 후 코인직의 기존 채굴 설비 및 인력은 스콰이어 마이닝 산하로 이전함

### ■ 캐나다 캘거리시, 현지 최초 자국 디지털 화폐 출시

- 11일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면, 캐나다 캘거리(Calgary)시가 캐나다 최초로 현지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출시하였으며 캘러리시에서만 운용 및 사용되고 연방 화폐인 캐나다달러와 함께 운용될 예정임

### ■ 캐나다 고등법원, 실수로 송금한 암호화폐 반환 명령

- 1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옥스퍼드대학교 법학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법률 블로그를 인용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고등법원에서 싱가포르 블록체인 스타트업 카피트랙(Copytrack, 원고)이 ICO 투자자 브라이언 월(Brian Wall, 피고)에게 실수로 보낸 ETH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함
- 원고는 ICO 중 피고측에 530 카프트랙토큰(CPY)을 지급해야 했지만, 실수로 530 ETH를 지급한 바 있음. 당시 530 CPY는 583달러, 530 ETH는 370,482달러 규모임
- 이에 대해 SAFE 프랑크푸르트 리서치 소속 연구원 그리고리 푸스토빗(Grygoriy Pustovit)은 “해당 판례가 추후 암호화폐 분실·도난 사건에 대한 선례구속력을 가질 것”이라며 “분실·도난된 암호화폐의 유통경로를 추적,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여되었다” 진단함

## 베 네 수 엘 라

### ■ 베네수엘라 페트로, 자국민들은 ‘회의적’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대다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가발행 석유 연동 암호화폐 페트로(Petro)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페트로 가격을 3,600볼리바르에서 9,000볼리바르까지 1배 이상 상향 조정 한다고 발표한 이후 다수 현지 언론이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이를 ‘정부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지적함

### ■ 2019년 3월부터 페트로 통한 석유 판매 발표

- 11일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지 미디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국가발행 ETH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를 통해 석유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 발표함
  -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ETH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는 차단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함
- ※ 페트로의 최소 단위인 1메네의 액면가는 석유 1배럴, 공식 환율에 따른 1메네의 가격은 9,000볼리바르

### ■ 볼리바르 아닌 페트로로 국민연금 지급

- 1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매월 기존 베네수엘라 통화인 볼리바르로 지급되었던 국민연금을 페트로로 대체 지급한다”고 발표함
- 현지 정책 전문 블로그 카라카스 크로니클스(the Caracas Chronicles)에 의하면, 정책 연금 수급자들은 자신의 페트로 지갑을 연금 포털사이트에 연동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볼리바르로 환전이 가능함

## 프 랑 스

### ■ 프랑스 14개 기업, R3 코다 블록체인 KYC평가 완료

- 3일 핀테크 전문 온라인 미디어 bankingtech에 따르면, 14개의 프랑스 기업이 R3의 코다 플랫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를 통해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 CordaKYC의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힘

### ■ 최대 유통업체 오샹그룹, 5개국서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추적 솔루션 도입

- 4일 미국 현지 미디어 시전(CISION)에 따르면, 프랑스 최대 유통업체 오샹그룹(Auchan)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및 세네갈 5개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추적 솔루션 TE-FOOD를 도입함
- TE-FOOD는 지난 18개월간 베트남 지사에서 시범운동을 거쳤고, 식품 품질 및 물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해 농장에서부터 최종소비까지 상품 카테고리를 추적함

### ■ 프랑스 등 7개 남유럽 국가 장관 “블록체인 발전 협력”

-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남유럽 7개국(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블록체인을 비롯한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들은 남유럽 국가의 디지털 생태계를 확장 시킬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 프랑스 의회, 블록체인 산업에 5억 유로 투자 권고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크립토라마(Coincryptorama)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가 향후 3년간 블록체인 산업에 5억 유로(약 5.

67억 달러) 투자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 해당 보고서는 프랑스 금융시장청(AMF)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블록체인 중소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 허용을 제안함

#### ■ 프랑스 국민의회, 암호화폐 세법개정안 반력

- 1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가 최근 상정된 암호화폐 관련 일련의 세법개정안들을 반력함
- 해당 개정안들에는 현지 암호화폐 거래 업체 및 이용자에 대한 기존 면세 한도(305유로)를 3,000유로 또는 5,000유로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개정안 중 암호화폐 거래 후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징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부결의 주요 원인임

## 러 시 아

### ■ 외신 “러시아 하원, 2018년 내 암호화폐 규제법 통과 예정”

- 10일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노보스티(BitNovosti)에 따르면, 러시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연합(RACIB)이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하원의회 금융시장 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2018년 말까지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할 계획이라고 밝힘

### ■ 러시아 의원, 금융 사이트 규제법안 발의...‘스캠’ ICO 폐기 가능

- 1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11일 화요일 러시아 의회의 한 모임이 의심 금융 사이트에 대한 규제법안을 발의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은행은 법원 신청을 통해 규제에 맞지 않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 블록체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저자 알렉산더 주라블레프(Alexander Zhuravelev)가 “의심 금융 사이트는 ‘스캠’ ICO가 포함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되는 ICO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함

### ■ 러시아 변호사 협회,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관련 전문위원회 설립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변호사 협회와 교육기관인 Blockchain Lawyers가 암호화폐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립함
- 해당 위원회는 현재 러시아에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없다고 판단, 위원회 설립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 ■ 러시아 의회, 연간 9,000달러 상한 개인 ICO투자 허용

- 1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법’ 초안을 개정, 해당 개정안은 일반 러시아인들의 60만루블(약 9,000달러) 이하 ICO프로젝트 투자를 허용하며, 프로젝트당 투자 상한선은 10만루블(약 1,500달러)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돈세탁 방지 차원에서 60만루블 이상 규모의 ICO 투자는 의무적으로 러시아 연방금융감독국(Rosfinmonitoring)의 감독을 받게 됨



## 영 국

### ■ 영국 펀드 거래 네트워크, 블록체인 시스템 인프라 구축

-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펀드 거래 네트워크 칼라 스톤(Calastone)이 2019년 5월 사업 전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연간 수십억 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함

### ■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74%, '규제 이슈' 가장 우려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이 디지털 혁신 에이전시 디지털 캐타펄트(Digital Catapult)의 조사결과를 인용 “약 74%의 영국 소재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포함한 규제 이슈”를 꼽음

※ C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인정보보호규정 : 2016년 통과되어 지난 5월부터 발효된 EU 전체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통합 규정으로, 특히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EU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도 적용

### ■ 스탠다드차타드, 브라질 이타오은행과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플랫폼 개발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일 글로벌 은행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브라질 상업은행 이타오 유니뱅크(ItauUnibanco)와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함
- 해당 플랫폼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는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소규모 기관 전용대출 및 신디케이트드론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 영국 블록체인 기업, 은행계좌 개설 문제 54%...ICO 진행률 4.5%

- 4일 디지털 혁신 에이전시 디지털 캐타펄트(Digital Catapult)가 최근 영국 블록체인 산업발전 보고서를 발표함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 설립된 260여개 블록체인 기업들의 현황은 △은행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54%) △ICO 진행(4.5%) △자기자본으로 시작(80%) △기존 자금조달 방식 채택(41%) △법률 자문 필요(45%) △영업 수입 창출(71%) △상품 출시 예정(74%)

## ■ 암호화폐 시장조작 사기 피해액, 월 평균 700만 달러 규모

- 5일 최근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시장조작을 통한 암호화폐 매매 사기 피해액이 월 평균 7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함

## ■ 영국 FCA, 금융 CFD 제한 정책 발표...내년 초 암호화폐 CFD 검토 예정

- 7일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7일 일시적으로 제한했던 CFD(contract for difference)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함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매입자와 매도자가 계약하는 일종의 차익거래

-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 파생상품의 최대 레버리지는 자산 등급에 따라 2배~30배 사이로 유지되며, 2019년 1분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CFD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 영국 국제 송금 업체, 리플 X-Current 솔루션 도입

- 12일 글로벌 외환 미디어 에프엑스스트리트(Fxstreet)에 따르면, 최근 영국 소재 외국환 브로커 겸 국제결제 업체 커런시즈 다이렉트(Currencies Direct)가 리플의 엑스커런트(X-Current) 솔루션을 도입함
- 엑스커런트는 SWIFT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솔루션으로 현재 전 세계 12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함

## ■ 2018년 암호화폐 이용자 두 배 증가...시장 회복 긍정적 신호

- 13일 블룸버그 통신이 케임브리지대학교 금융연구센터(CCAF)가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2018년 이래 비트코인 가격이 약 80% 하락했지만 암호화폐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회복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암호화폐 이용자는 3,500만명으로 연초 1,800만명 대비 약 두배 증가하였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계좌 수의 증가세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 보고서 “비트코인 사망설...언론 보도 과장”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학교 금융연구센터(CCAF)가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실질 이용자 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이어 “85% 가격 하락으로 인한 비트코인 사망설은 언론매체들의 지나친 과장 보도”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연구팀은 “2017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 드러난 건 사실이지만, 현재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화 수준은 2018년 1월을 웃돌고 있으며, 시장 및 생태계 사망에 대한 추측성 보도들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임

## ■ 영국 국세청,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과세 방안 발표”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방안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발표

## 중 국

### ■ 베이징 금융 규제국장 “STO 관련 행사,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

- 1일 중국 경제미디어 차이렌서(财联社)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지방 금융 규제국 창휘쉐(长霍学)국장이 2018년 17회 중국 기업가 서밋(China Entrepreneur Summit)에서 “당국은 STO(증권형토큰공개) 관련 행사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힘

### ■ 중국 법률전문가, “중국 내 STO불법...엄격한 ‘증권’해석에 따른 조치”

- 5일 중국 현지 경제 미디어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행(中國銀行)법률 연구소 샤오샤(肖飒)이사가 최근 당국이 발표한 ‘STO 관련 행사 불법 금융활동 간주’ 조치에 대해 “국가별 STO에 대한 규제 방침이 다르며, 미국의 경우 STO에 관대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법을 피해갈 수 없다”며 “증권에 대해 ‘회사법’(公司法)과 ‘증권법’(证券法)을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고, ‘증권 임의 발행’에 적용되는 형법 또한 갖춰져 있다”고 밝힘
- 따라서 관련 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증권을 발행하는 STO는 규제를 피할 수 없고, ICO와 마찬가지로 STO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

### ■ 중국 9개 지방정부, 6.5조 규모 블록체인 산업 기금 조성

- 5일 중국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 플랫폼 블록데이터(链塔智库)에 따르면, 중국 9개 성정부가 400억 위안(약 6.5조원)규모의 블록체인 산업 기금을 조성했으며, 특히 항저우, 난징, 허난이 각각 100억 위안(약 1.6조원)을 조달함
- 이는 현지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산업 기금으로써, 기술 연구에 집중된 형태로 블록체인 산업발전에 이용될 예정임

## ■ 선전 세무국, 위챗페이 블록체인 전자 영수증 정식 출시

- 중국의 최대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의 공식 계정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 세무국이 위챗페이 블록체인 전자 영수증 기능을 정식 출시함
- 해당 기능은 지난 10월 선전시 일부 상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정식 출시로 선전 시내 위챗의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를 지원하는 모든 상점이 블록체인 전자 영수증 발행을 채택해 세금 납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임

## ■ 외신 “중국, 블록체인 특허 경쟁 1위...미국의 약 2배”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BTC매니저가 IT전문 미디어 컴퓨터 월드(Computer World)를 인용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경쟁에서, 중국이 1,520건, 미국은 773건을 등록했다”고 보도
- 아울러 한국 국내 블록체인 솔루션업체 코인플러그(Coinplug)가 총 69건의 특허를 등록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함. 해당 업체는 주로 ‘전자지갑’(electronic wallet) 및 ‘온라인 POS 서비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 중국 CCID 제8차 퍼블릭체인 평가 결과 공개...TOP3에 EOS,ETH,GXS

- 20일 중국 공산부 산하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이 제 8차 퍼블릭체인 평가 결과를 공개, 이는 총 34개의 퍼블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평가함
  - 1위~3위 : EOS(156.0점), ETH(136.4점), GXS(117.5점)
  - 4위~10위 : KMD, ONT, NULS, NAS, BTS, NEO, STEEM
  - BTC는 종합점수 96.1점을 얻어 18위

## 홍콩

### ■ HSBC, 향후 3~5년 블록체인 포함 핀테크 분야에 2억달러 투자

- 3일 홍콩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HSBC의 왕동성(王冬勝) 아시아태평양행정총재가 “HSBC는 향후 3~5년 동안 2억 달러를 무역금융, 외환 및 자산 관련 업무에 활용될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핀테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힘

### ■ 홍콩 금융당국,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 강화 검토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최근 홍콩 금융선물위원회(SFC)가 동남아 전역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와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ICO관련 법규 재평가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 강화를 검토함
- 앞서 SFC는 지난 11월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함과 동시에 암호화폐 투자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인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 외신 “혼란에 빠진 비트메인 IPO”...HKEX는 ‘노코멘트’

- 1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HKEX) 대변인이 앞서 일부 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업계 불안정성으로 인해 HKEX가 비트메인의 IPO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HKEX는 루머에 관한 평론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함
- 이에 해당 미디어는 “앞서 비트메인의 IPO 투자자로 알려진 싱가포르 국립 투자회사 테마섹(Temasek), DST글로벌, 소프트뱅크 등이 비트메인 투자설을 부인하며 비트메인의 IPO가 논란에 휩싸였고, 비트메인이 지난 11월 고객들의 채굴기로 부당수익을 거둬들인 혐의로 집단소송에도 직면한 상태”라며 지적함



## 일 본

### ■ JVCEA, 사용자·거래소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해결 센터’설립

- 일본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도쿄(Cointokyo)에 따르면, 2일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사용자와 거래소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해결 센터’를 설립하였다고 밝힘
  -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① 거래소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 ② 소송이 아닌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 ③ 고소 후 3개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 ■ G20, 2020년까지 디지털 자금세탁 규제 방침 마련

- 일본 현지 미디어 지지닷컴(jiji.com)에 따르면,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국제 디지털 과세 제도 정비에 협력해 나간다고 하며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 검토를 진행하였고, 2020년까지 최종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 일본 FSA, 개인 투자자 ‘투자형 토큰’ 구매 제한 가능성

- 2일 야후 재팬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금융청(FSA)이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과 유사한 성질을 띠는 ‘투자형’ 토큰 구매를 제한할 가능성 시사함
- 2019년 정기국회에서 FSA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일부 토큰 투자 행위를 제한함

## ■ SBI 홀딩스, “채굴시장 점유율 30%까지 늘릴 계획...시장 안정화 목표”

- 3일 일본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기타오 요시타가 SBI홀딩스 CEO가 최근 주주설명회에서 “SBI는 보다 넓은 인프라를 구축해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30%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앞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한 BCH 해시 전장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 회원사 취급 암호화폐 20종 발표

- 3일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공식 사이트에 회원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20종의 암호화폐 및 해당 암호화폐의 소개서를 발표함
  - 이번 발표에는 BCH, BCY, BTC, CICC, COMSA, ETC, ETH, FSCC, LSK, LTC, MONA, NCXC, PEPECASH, QASH, SJCX, XCP, XEM, XRP, ZAIF, ZEN 등 포함

## ■ 일본 GMO, 암호화폐 채굴 수익 696 BTC 기록

- 6일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워치(Crypto.watch)에 따르면, 일본 GMO그룹이 암호화폐 채굴 11월 업무실적 보고서를 5일 발표함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지난달 BTC와 BCH 채굴 수익은 각각 696 BTC(약 264만달러), 400 BCH(약 5.36만달러)를 기록, 또한 11월말 해시파워는 668PH/s를 기록, 12월은 채굴기 추가 도입으로 해시파워는 800PH/s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함

## ■ 일본 경찰청, 암호화폐거래소 ‘의심거래’ 전년 대비 8배 증가

- 6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NPA)이 통계보고



서를 통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에 제보한 의심거래 수가 총 5,944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는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로, NPA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거래소 규제 제도가 안정화 되기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했다”며 규제 안정화를 의심거래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의심거래 중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자금세탁, 마약밀매 및 아동 음란물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 일본 FSA연구회, 암호화폐 규제안 최종보고서 발표

- 10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산하 연구회가 암호화폐거래소 규제안 관련 최종보고서를 최근 발표, 금융청에 암호화폐거래소 암호화폐 유출 관련 대비책과 거래소가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할 시 금융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제프레임 마련을 촉구함
- 이와 관련 연구회는 암호화폐 유출 방지 차원에서 암호화폐거래소에 '핫월렛에 보유된 암호화폐' 보다 많은 보유량을 콜드월렛에 확보할 것'을 권고함

### ■ 일본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기반 대출심사기술개발

- 11일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일본 시스템 개발 전문 스타트업 제로빌뱅크재팬(ZEROBILLBANK JAPAN)이 최근 블록체인 기반 대출심사 기술을 개발함
-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 메커니즘을 사용, 1~2일이 걸리는 기존 대출심사 소요시간을 20분까지 단축 가능함

## ■ 일본 미쓰이신탁 은행,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 개발 추진

- 12일 일본 미디어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 신탁은행이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의 변조방지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해당 시스템은 도시, 사무공간, 빌딩을 중심으로 렌탈 데이터와 공실률, 유지보수 현황 및 기타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돼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 일본 FSA, 새로운 암호화폐 · ICO규제 초안 발표

-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14일 새로운 암호화폐 및 ICO규제 초안을 발표함
- 해당 초안에는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은 해킹사건, 자율규제, 프라이버시 코인과 마진 거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제1회~11회 암호화폐거래소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 일본 FSA, ‘암호화폐거래소협회’ 자율규제단체 인정

- 25일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거래소협회를 자율규제단체로 공식 인정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규제권한을 승인함. 이에 따라 일본가상통화거래소협회(JVCEA)는 일본 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을 직접 관리 · 감독할 수 있게 됨
- 이번 금융청 결정에 따라 라쿠텐카드, 미쓰이스미모토카드 등 선불카드거래, 송금 업무 주요 기업들이 자금결제협회에 가입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결제사업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암호화폐거래소들도 JVCEA에 가입해 결제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금융당국, 포괄적 ICO 가이드라인 발표

- 2일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ICO기반 비즈니스 대상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토큰 발행인, 토큰 거래 관리 기관, 재무 자문 업체 등 토큰 관련 모든 거래 및 투자 대상이 싱가포르 당국의 법적 규제를 받으며, 특히 토큰 발행 프로젝트 제안자, 토큰 거래 재무 자문 서비스 업체 등은 싱가포르 자본시장 금융 서비스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고 그 외 해외 싱가포르 투자자 대상 금융 자문 서비스 기관이나 암호화폐거래소 등은 MAS의 승인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싱가포르 통화청 “ICO 토큰 판매, 현지 증권법 범위 내 투자제안서 필요”

- 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라이브비트코인뉴스가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최근 업데이트된 ‘디지털 토큰 판매 가이드라인’을 인용 “싱가포르 국경 내 ICO를 통해 판매되는 토큰은 SFA(증권선물법)에 부합하는 투자 설명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

### ■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블록체인 투자 펀드 조성...2억 달러 조달 목표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여만캐피탈(Yeoman Capital)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 투자하기 위해 하드캡 기준 목표 조달액 2억달러 규모의 ‘여만스 성장형 펀드(YGC)’를 론칭
- 여만 캐피탈 창업자 데이비드 존스턴(David Johnston)은 “우리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기술 채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이 해당 펀드를 론칭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덧붙임



##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1월 제3호